

국민 먹거리·생태 보전 ... 농촌이 살아야 도시도 산다



2022년 대선의 해
신 균형발전 원년으로

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

<11> 농촌농업가치 헌법에 답자

수도권 중심의 도시 쏠림 현상이 수십 년째 이어지면서 농촌 공동체 소멸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50여년간 농촌 인구는 급감하고 고령화율은 급증했다. 머지않은 장래에 농촌 공동체가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생겨나는 이유다. 도농 불균형을 깨고 농촌을 살리는 길의 시작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국가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 담는 것이라고 농민들과 농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남 18개 시군이 '소멸 위기' 농민기본소득 등 도입 목소리 대선국면 농촌 공약은 실증

농업과 농촌은 국민 식량 공급이라는 1차 기능 외에도 다양한 공익적 기능·가치를 담고 있다며, 이를 명문화해 농촌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도입이 도농 불균형 해소와 농촌살리기의 근본적 해법이라며 "우리 사회가 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 운동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5일 전남도와 광주전남연구원,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65년 대한민국 인구는 2870만명이었고, 이 중 55.08%에 해당하는 1581만명이 농가 인구였다. 50여년이 지난 2018년 대한민국 인구

5180만명 가운데 농가 인구는 231만명(4.45%)에 그쳤다. 같은 기간 농촌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은 3.2%에서 44.7%로 경증 뒤편었다. .

농도(農道) 전남의 경우 1970년 인구가 393만명에 달했으나 50여년이 흐른 2021년 3월에는 184만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국가 인구는 68% 증가한 반면 전남 인구는 절반이 넘는 53%가 감소했다. 이 같은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정부 정책 실패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산업화시대 이래 도시 중심의 산업 육성으로 도시에 일자리가 집중됐고, 1990년대 이후에는 정부 주도의 농산물시장 개방 등 개방화 농정으로 농가 소득이 급감하면서 농촌에 사람이 살기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서정원 광주전남연구원 농어촌활력연구실 연구위원은 "2000년 농가소득은 2307만원이었고 도시 2인 이상 가구 소득은 2664만원으로, 도시 가구 대비 농가 소득은 86.7%로 큰 차이가 없었다"며 "그러나 대도시 중심 압축성장과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도

농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2019년 도시 가구 대비 농가 소득 비율은 66%(농가 소득 4118만원, 도시 2인 이상 가구 소득은 6239만원)으로 격차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박경철 전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은 "농촌이 한계 상황에 내몰린 것은 당연히 정부 정책 실패 때문이다. 농업 경쟁력이 높은 농업선진국에 비해 농업구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을 추진하면서 농업 기반이 붕괴됐다"며 "농사로 먹고살기 어렵게 되자 농촌 인구가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도시로의 인구 유출은 도농 격차를 더욱 키웠다. 인구가 몰려드는 도시는 교육·문화·의료·도로·철도·항공 등 각종 기반 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됐다. 반면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은 경제성을 따지는 정부에 막혀 도로 등 기반시설조차 지극히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눈앞으로 다가온 공동체 소멸까지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한국고용정보원 분석 결과, 2020년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05곳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고, 이 가운데 92.4%인 97곳이 비수도권에 집중된 것이다. 서울, 대전, 울산 등 주요 도시는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없었으나, 전남 22개 시군에선 18곳이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됐다. 도청 소재지 무안과 혁신도시 소재지 나주가 소멸 위험지역에 신규 편입돼 충격파를 몰고 왔다.

서정원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농 불균형 해소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국가와 우리 사회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에 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위원은 "헌법을 통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은 식량안보, 생태보전, 국민 먹거리 보장, 삶의 질 향상 등 국토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스위스 등 일부 국가는 1990년대에 이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연방헌법에 반영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대병원·광주고법 확진자 발생

코로나 검사 범위 확대 '긴장' 국내 10명 중 9명이 델타 변이

전남대학교병원과 광주고등법원 등 주요 국가 시설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에서 지난 24일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인 종사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의료진과 환자 등 293명을 검사한 결과 지표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 2명도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구, 지원단은 합동으로 현장 위험도 평가에 들어갔으며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접촉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추가 환자 발생 시 접촉자를 재분류하고 해당 병동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등을 검토해 확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집단 감염으로 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돼 지역의 의료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광주고법에서는 지난 23일과 24일 연이어 직원 1명씩이 확진된 데 이어 이날에도 확진된 직원과

접촉한 방문자, 그리고 그 가족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방역 당국은 법원으로부터 출입자 명단을 확보해 지난 19~21일 방문자를 전수 검사하기로 했다. 9명은 자가격리, 8명은 능동감시하기로 하고 지하 1~지상 6층 건물과 근무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해 접촉자를 분류하고 있다.

광주에선 이날 오후 2시 현재 모두 19명이 신규 확진되는 등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광주고법 관련 3명, 서구 모 고교 관련 1명, 다른 시도 확진자 관련 2명, 광주 기존 확진자 관련 8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유증상자 5명이다.

전남은 사흘째 한 자릿수 신규 확진자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다. 전남 신규 확진자는 지난 23일 9명, 24일 8명, 25일 오후 2시 현재 5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2484명이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닷새 만에 다시 2000명을 넘었다. 국내 확진자 10명 중 9명에서 델타 변이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델타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발병 초기 최대 300배 이상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배출한다"고 소개했다. 김 총리는 "델타 변이로 인한 이번 유행은 이전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폭발적인 확산세를 피할 수 없다"며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하고 빈틈없는 방역태세 유지를 주문했다.

/박진표·김형호 기자 lucky@kwangju.co.kr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국제기후환경산업전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아에서 내놓은 전기자동차 EV6를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제12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 개최

27일까지 DJ센터에서 ... 100개 기업 230개 부스 운영

호남 최대 환경전시회인 '제12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이 25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금란 광주지방기상청장 등 12개 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 코트라(KOTRA), 동남성장위원회 등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27일까지 3일간 열리며, 광주지방기상청, (재)한국공기안전원, 광주환경공단, 광주과학기술원 등 기후·환경 관

련 공기업과 기아자동차, 카본헥사, 퓨리움 등 환경대표기업 100개사에서 230개 부스를 운영한다.

기업들은 탄소중립, 자원순환, 수처리, 기후변화 대응 등 탄소중립을 선도할 미래 환경 신기술을 알리고 신제품을 전시·판매한다. 인도, 칠레, 베트남 등 8개국 15개사가 참가하는 해외수출상담회는 코트라 공동주관으로 9월 3일까지 화상으로 열린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영문대학교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맘편한 광주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

청년의 출발부터 결혼·임신·출생·육아돌봄·일생활균형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으로 시민과 함께합니다.



만남	결혼	임신	출생	육아·돌봄	일·생활 균형
‘광주청년잇다’ 소통앱 운영 ‘응답하라 2030’ 청년동아리 지원	- 행복 플러스 건강지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임산부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등	- 출생육아수당 지급 -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지원 등	24시간 긴급아이돌봄 센터 운영 - 임원아동 돌봄서비스 운영 등	- 가족친화경영 및 육아 휴직대행 수당 지원 - 가족친화 인증 우수 기업 발굴 및 홍보 등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www.광주아이키움.kr (상담전화 062-222-1279/223-1279)